

2008. 10. 26. 일

광주,호남지역민들레 순회 말씀 (강호경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에 감동을 받으실 때 깊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술제 공연을 보시고서..

1. 공연은 무대등장 할 때부터 퇴장할 때까지입니다.

프로는 등장 할 때부터 프로입니다. 대강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은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프로는 무대 등장할 때부터 끝나고 나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2. 인사할 때 평소보다 더 길게 정중하게 해야 합니다.

인사를 1초 2초를 더하느냐 덜 하느냐에 따라서 프로냐 아마추어냐가 좌우됩니다.

3. 합창이나 춤을 단체로 무대 설 때는 한 가지라도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을 달라도 같은 색상의 옷이나 구두색을 통일하든지 같은 꽃사지나 스카프를 한다든지.. 그래야 더 단합된 느낌을 줍니다.

프로그램 중 시낭송이나 간증 선생님께 드리는편지도 예술제프로그램으로 좋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없었습니다.

4. 어려운 것을 택하기보다는 쉬운 것을 완벽하게 하십시오.

5.사회자가 즉석으로 춤을 제안했을 때 거절한다든가 시간을 끌면 판이 식게 됩니다.

준비가 됐든 안됐든 분위기를 살려 줘야합니다. 선생님도 노래부르고 시켰을 때 1,2초만에 바로 하지 않고 머뭇거리면 심정상해 하셨습니다.하나님께서 보시는 무대이기 때문이죠.

결혼은 운명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좌우합니다.

영계에 가서 후회 안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영계에 가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역사 15년 남았습니다.

민들레의 가치는 선생님과 함께 당세에 뛰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자세하게 준비하고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축복가정이 천년역사의 후세들을 기르는 것이 사명이라면, 민들레는 당세에 주님과 함께 쇼부를 봐야 합니다.

선생님은 하늘을 신랑 삼고 부터 하나님 맘에 맞게 고치셨습니다. 민들레가 되었다면 이제 결혼생활의 시작입니다. 빨리 자기를 갖춰야 합니다. 음식도 할 줄 알고, 청소도 깔끔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구체적이지 못하고 막연합니다. 자세히, 말쑥을 깊이 보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약속하고 누구 만나는 것도 하나님 주님께 물어보고 만나야 합니다.

수도생활시절, 선생님은 화장실 가는 것도 예수님께 허락받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나의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허락받고 살아야 합니다. 삶에 미약합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긴장이란, 공에 바람이 빠지면 튀질 않지만 공에 바람을 넣어 뽕뽕하면 높이까지 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내시간도 주님시간이고, 내 것도 주님 것입니다. 마음을 먹으면 오늘의 삶부터 달라집니다. 긴장하고 근신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갑니다. 본 시합이 시작 됐으니 더 맘과 뜻과 목숨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웬만하면 목회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700~1000개 교회를 만드실 계획이신데 목회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목회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목회 할 때 주님 심정 제일 느낍니다. 자기의 부족을 가장 빨리 채울 수 있습니다. 늦게 결정해서 민들레가 되지 않았습니까? “언젠가는 하겠지”막연한 생각 버리고 목회하는 것 만큼은 빨리 결정하고 준비하길 바랍니다. 부교역자도 하면 너무 좋죠. 민들레들은 충성되고 착한데 너무 소극적입니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이어야 합니다. 딱 뚫고 올라가는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도전하십시오. 사랑의 감각, 신부로서의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상록수는 좀 커야 하지만 민들레는 당장 쓰실 수 있는 그룹입니다. 여러분은 경험많고 연륜도 쌓여 있고.

세밀하게 기도하고 시간 사용도 하나님과 의논하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심과 섬김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됐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많은 걸 갖추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신부니까 영 육간에 모두 계발해야 하고 외모도 더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몸까지 하늘 앞에 드리겠다고 했으니 늘 정신, 육, 영까지 깔끔해야 합니다. 공식모임이나 새벽기도 때도 꼭 샤워하고 옷도 깔끔해야 합니다.

사랑에 완벽해야 깔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단속해야 합니다. 가을바람, 영화, 드라마, 축복식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 시간은 구원론에 있듯이 하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시간이므로 씻고 닦고 단정해야 합니다. 항상 하늘 모시고 사는 삶이므로 깨끗해야 합니다. 몸도 방도 교회도 항상 깨끗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항상 청소하십니다. 평생 다시 안 올 길도 닦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을 모시고 가기 때문입니다.

깔끔함이 모심과 섬김의 근원입니다. 항상 깨끗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술선수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주인(부인)이 치우는 것입니다.

섭리사는 레위지파입니다. 섭리사안에서 축소시키면 우리들이 레위지파입니다. 12지파 중 레위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 늘 찬양하고 춤도 추고 계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부족해도 못해도 좋아 하시지만 하나님은 수준이 있으시니 **갖춰서 제대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더 좋아 하십니다.

찬양도 하늘이 시켰을 때 바로 2초 만에 나와야 합니다. 늘 평소에 준비 되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모든 면에서 더 세련되면 좋으니 개성의미를 살리십시오. 예술 면에서 계발해야 합니다.

10월 11월은 바짝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달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만 이뤄질 뜻이 있기에, 그렇게 생명을 전도해야만 이뤄질 뜻이 있기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애인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애인들의 기도가 너무 큼니다. 사랑의 조건을 세웠기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기도는 파워가 큼니다.

전반기때,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성공 했어! 내가 결혼안하고 내 몸까지 하늘앞에 드려서 이 역사 성공했듯이 너희들도 성공했다.”고 하셨습니다.

인류역사상, 여자로서 우리처럼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자로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가치성을 깨닫고 가치성에 걸맞게 갖추고 만들고 수준을 세워야 합니다. 수준이 되어서 택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봐도 나 자신이 부족한서 투성인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우선, 선생님께서 하늘앞에 세운 조건으로 받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받아 주신거죠. 사랑으로 가는 역사입니다.

목회를 하든 안하든 구원을 이뤄야하고, 민들레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뭘 시키면 부족하다고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부족한지 일일이 써보고 어떻게 채울건지,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목록을 만들어서 매일 체크해야 고칠 수 있어요. 부족함을 채우고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교역자 수준 이상으로 말씀 듣고 읽도록 하세요.

구체적으로 삶의 계획을 매일 매일 짜고, 성경은 하루 몇 장, 주일·수요말씀은 몇 번 읽고, 찬양은 하루 몇 곡, 구원의 말씀도 읽어야 하고, ‘지옥은 있습니다’ 책도 읽어야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할일이 너무 많습니다.

광주,전주가 민들레가 적고 선교가 힘든 것은 사랑의 기준자들이 하늘과의 약속을 많이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못세운 조건까지 세워야 합니다.할 일이 많죠? 꼭 그렇게 하길 기대하십니다. 광주는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한이 많은 곳이라고 하

쥬? 광주의 애인역사도 하늘앞에 많은 한을 남겼습니다. 그것부터 풀
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지역의
섭리가 좌우된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민들레에게 원하는 것은 많은 상록수를 전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월성에게도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준자들이 사
랑의 감각 갖고 전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신부가 신부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성교육도 받으세요. 이성교육은 철저할수록, 완벽할수록
좋습니다.